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b>문화도시 지정! 삶의 공간에 인문·예술을 그린다</b> 경북 포항시 문화도시 지정, 성주군 예비 문화도시 승인 5년간 총 사업비 200억원(국비 100, 지방비 100) 투입 도민들의 문화적 삶 고양	문화산업과	
② <b>경북도 동해안 오징어 등 어획량 급감에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b> 수산분야 농어촌진흥기금 176억원 상환기간 특별연장! '19~'28년 상환 용자액으로 시설 120억원, 운영 56억원 총 213건	해양수산과	
③ <b>참신해서 눈에 띄는, 2020년 경북형 시책</b> 일자리... 경북형 청년창업특구, 학(學)·잡(Job)·아(兒) 프로젝트 등 저출생... 새생명탄생 119 구급서비스, 미혼부모 보금자리 등 한번 더 높은 참전용사 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도 각광 ※ 12. 26(목) 기 송부한 보도자료 재 송부	정책기획관	
④ <b>경북도, 설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b> 1,200억원 규모, 기업당 3억원(우대 5억원) 이내 용자지원 대출이자 2% 차보전	중소벤처 기업노동과	
⑤ <b>도시청년 시골로 간 까닭은?</b> 이낙연 국무총리, 도시청년시골과견제 사업현장 방문 문경 화수현 한옥게스트하우스 운영 청년들과 간담회 이철우 지사... 도시청년시골과견제 국비지원 국립레포츠진흥센터 조성 건의	일자리청년 정책관	
⑥ <b>이철우 도지사, 2020년 첫 시작은 대구경북 통합과 상생</b>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통합신공항 건설 등 하나된 대구경북 결의	관광마케팅과	

	<b>보도자료</b> <b>【19. 12. 31(화)】</b>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산업과			
		작성자	과장	황영호		
			팀장	김걸동	주무관	김대원
		연락처	054-880-3142			

## 문화도시 지정! 삶의 공간에 인문·예술을 그린다

- 경북 포항시 문화도시 지정, 성주군 예비 문화도시 승인 -  
 - 5년 간 총 사업비 200억원(국비100, 지방비 100) 투입, 도민들의 문화적 삶 고양 -

경상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문화도시지정 국비 공모사업’에 포항시가 최종 지정되고 예비 문화도시로 성주군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새해부터 지역 고유 문화적 브랜드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화도시 지정사업은 그동안 문화특화지역사업 및 지역거점 문화도시 등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한 도시문화 관련 사업 경험을 축적하고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2018년부터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문체부에서는 2018년 12월 예비 문화도시로 승인 받았던 총 10개의 지자체 중 예비사업 추진 과정 및 결과, 행·재정적 추진기반 확보, 추진효과 및 가능성 등에 대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항시를 포함하여 최종 7곳을 문화도시로 지정했다. 또한 1년간의 예비 사업 기회를 부여받고 2021년부터 문화도시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지자체로 성주군을 포함한 총 10곳의 제2차 문화도시 조성계획(예비 문화도시)을 승인했다.

포항시에서는 ‘철강 산업도시’라는 기존 정체성을 ‘철학(鐵學) 문화도시’라는 비전으로 확장시켜 각종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철강 예술 축제 관련 사업 등을 원도심(꿈틀로)에서 개최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한 문화거점 활용 가능성을 다양하게 보여주어 높은 평가를 받아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이로써 2020년부터 5년간 최대 200억원(국비 100, 지방비 100) 규모의 사업비를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발전과 문화적 가치 재발견을 위한 문화생태 구축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예비 문화도시로 승인 받은 성주군은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문화도시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아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한 후 2020년 말 문화도시심의 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쳐 제2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받게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시와 성주군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문화도시와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우리 경상북도는 문화적 도시 재생사업과 문화특화지역사업 추진 등 그동안 축적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여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법정문화도시 포항시 지정 및 성주군 예비 문화도시 승인 결과 보고

❖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사회·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

## 추진개요

- 주 관 : 문화체육관광부(문화도시심의위원회 14명)
- 근 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문화체육부장관 문화도시 지정)
- 지정방식 : 5개 분야(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형 중 지정 신청)

## 선정결과

- 포항시 1차 문화도시 지정(지역자율형) \*국가지정 문화도시 선도 추진(1위)
  - 포항시 예비 문화도시 승인 : 2018. 12. 26.
  - 예비사업 추진 : 2019. 1 ~ 12월 (1년간) \*2019. 12. 20. 평가 실시
  - 문화도시 7곳(포항시, 부천시, 원주시, 청주시, 천안시,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지정  
※ 김해시, 남원시, 대구광역시 3곳 탈락
- 성주군 2차 문화도시 승인(사회문화 중심형) \*2020년 예비사업 추진 후 연말 확정
  - 안동시, 구미시, 성주군, 칠곡군 신청 : 2019. 6. \* 2019. 12. 13. 평가 실시
  - 신청 시군 25곳 중 10곳(성주군, 인천 부평구, 오산시, 강릉시, 춘천시, 공주시, 완주군, 순천시, 통영시, 제주시) 예비 문화도시 승인

### 법정 문화도시

- ▶ 규 모 : 최대 200억원 지원(국비 100, 지방비 100) / 5년간
- ▶ 내 용 : 문화적 장소·콘텐츠·문화전문인력 분야 통합 지원
- ▶ 지정절차 : 사업계획 승인(Y-2) → 예비사업(Y-1) → 본 사업 추진(Y~Y+4)

## 향후계획

- 포항시 : 2020~2024년 5년간 국비 최대 100억원을 지원 받아 본 사업 진행
- 성주군 : 2020년 1년간 예비사업 실시 후 추진실적 평가

	<b>보도자료</b> <b>【19. 12. 31(화)】</b>	담당부서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과			
		작성자	과장	허필중		
			팀장	권기수	주무관	안준황
연락처	054-880-7719					

## 경북도, 동해안 오징어 등 어획량 급감에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 수산분야 농어촌진흥기금 176억원 상환기간 특별연장!! -
- '19~'28년 상환 용자액으로 시설 120억원, 운영 56억원 총 213건 -

경상북도는 최근 오징어 등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동해안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에 따른 어업경영 안정을 위해 지난 26일 열린 ‘2020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에서 수산분야 농어촌진흥기금 213건, 176억원(시설 120, 운영 56)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 특별연장은 우리도 어업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오징어의 어획량이 854톤(주성어기 '19. 10~11월), 이는 전년 대비 12% 수준으로 어획부진에 따른 각종 수산정책자금 이자도 내기 어려워 그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도 긴급경영 안전자금을 척당 2천만원(채낚기어선) 확정·지원하며, 영어자금 상환연기 검토와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변화 등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와 중국 어선 북한수역('04년부터 매년 1,800여척) 싹쓸이 조업으로 도 어업생산량은 '12년 14만7천톤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18년 9만8천톤으로 '12년 대비 67% 감소로 어획량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어려운 어업현실을 감안하여 “20년 해양수산 분야 예산 946억원으로 '19년도 412억원보다 2.3배(534억원) 증액된 예산 반영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신환동해시대에 어업인들이 잘사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 연도별 수산물 생산 현황

## 12~18년 수산물 총생산량

(단위 : 톤, 백만원)

연도별		생산량 현황			비고
		경북	국내	원양	
2012년	생산량	147,559	2,608,116	575,308	
	금액	530,401	6,033,645	1,655,406	
2013년	생산량	138,010	2,585,322	549,928	
	금액	501,111	5,818,853	1,408,034	
2014년	생산량	133,624	2,635,088	669,140	
	금액	500,154	6,076,770	1,275,222	
2015년	생산량	126,465	2,759,246	578,137	
	금액	492,014	6,233,727	1,023,738	
2016년	생산량	116,146	2,815,379	454,053	
	금액	521,968	6,398,984	1,077,763	
2017년	생산량	114,848	3,278,986	445,726	
	금액	586,393	7,432,568	1,134,303	
2018년	생산량	97,639	3,298,292	493,063	
	금액	547,814	7,478,130	1,163,909	

※ ('12년) 14만7천톤 → ('18년) 9만8천톤으로 67%감소

## 10~18년 오징어 생산량

(단위 : 톤, 백만원)

연도별	경북		전국		비고
	생산량	금액	생산량	금액	
2010년	66,630	241,299	159,130	567,828	
2011년	70,864	294,825	171,643	693,642	
2012년	73,952	242,598	181,408	548,876	
2013년	63,387	208,534	154,555	450,939	
2014년	59,734	194,239	163,886	444,475	
2015년	54,684	177,850	155,743	413,217	
2016년	44,203	203,921	121,691	483,122	
2017년	27,427	188,560	87,024	492,658	
2018년	15,903	153,004	46,274	382,055	

※ ('12년) 7만4천톤 → ('18년) 1만6천톤으로 78%감소

## 19년 1~11월 오징어 생산량('19년/'18년 대비)

(단위 : 톤,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19/'18(%)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중량	금액	
합 계	14,435	124,599	12,510	107,126	△13.3	△14	
1월	2,420	20,400	5,230	41,979	116	106	
2월	937	6,141	1,830	14,311	95.3	133	
3월	97	665	118	976	21.4	46.7	
4월	35	471	16	200	△54.7	△57.5	
5월	617	3,964	634	6,299	2.8	58.9	
6월	1,182	8,384	1,220	10,874	3.2	29.7	
7월	755	7,312	659	5,291	△12.7	△27.6	
8월	409	3,758	349	2,643	△14.9	△29.7	
9월	1,010	9,103	1,600	15,145	58.5	66.4	
10월	5,048	44,210	609	6,532	△87.9	△85.2	
11월	1,925	20,191	245	2,876	△87.3	△85.8	

※ 성어기(10~11월) : ('18년) 6,973톤 → ('19년) 854톤으로 88%감소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2. 26(목)】</b>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작성자	과장	정성현		
			팀장	박시균	주무관	김수환
연락처	054-880-2113					

## 참신해서 눈에 띄는, 2020년 경북형 시책

- 일자리... 경북형 청년창업특구, 학(學)·잡(Job)·아(兒) 프로젝트 등 -
- 저출생... 새생명탄생 119 구급서비스, 미혼부모 보금자리 등 -
- 한번 더 높은 참전용사 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도 각광 -

‘변해야 산다’를 외치며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선7기 이철우 호가 참신하고 새로운 시도로 눈에 띄는 2020년 사업들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2019년에도 새로운 정책들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지방소멸 지수 1위 지역인 의성에 조성되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이미 70여명의 청년이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산업, 스마트팜, 예술활동 등을 준비하고 있다. 케이티(KT), 하나그룹, 포스코 등 대기업에서 시범마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어 앞으로도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외에도 시·군 주민간 상부상조로 지역 축제를 부업시키는 ‘축제 품앗이’, 해외기업 직원 2,918명을 유치해서 경북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해외진출기업 직원 관광 유치’,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복지와 일자리의 융합 모델인 ‘경로당 행복도우미’, 청년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월급받는 청년농부’,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결혼 목돈자금을 마련해주는 ‘청년행복 결혼 공제사업’ 등 수많은 신규 시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었다.

2020년에도 경북의 특색에 맞는 참신한 정책들을 다수 보이고 있어, 더 새롭고 더 과감한 정책을 펼치기 위한 이철우 지사의 남다른 노력이 엿보이고 있다.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만큼, 특색있는 사업들로 경북형 일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책들도 다수 보인다. 대학가 인근에 조성할 계획인 ‘경북형 청년창업특구’는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추진하고 각종 창업 존(Zone)과 스타트업 지원으로 경북을 대표하는 청년창업 통합 플랫폼으로 만들어간다.

그리고 ‘학(學)·잡(Job)·아(兒) 프로젝트’는 고졸 청년을 정책대상으로 해서 역량 개발, 일자리 연결, 지역 정착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경북 4050 행복일자리 프로젝트’는 청년과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정책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40~50대를 초점으로 재취업·창업·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시책이다.

출생과 보육을 위한 이철우 지사의 세심한 배려도 돋보인다. 산부인과 없는 지역의 임산부에게 병원 진료를 위한 후송을 지원하는 ‘새생명 탄생 119 구급서비스’,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서 공간을 활용해서 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경북 119아이행복 돌봄터’, 그리고 미혼부모에게 주택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미혼부모-아이 행복보증자리’가 바로 그것이다.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 분야에서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에 따라 천년고도인 경주의 ‘신라왕경 복원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포항 영일만항에는 국제여객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 건설로 ‘국제크루즈 여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3대 문화권 사업을 잇는 대규모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낙동강 문명길을 재조명하는 ‘강(江)나루 문화 광역관광자원화 사업’을 1조 2천억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산에 조성될 예정인 ‘독고탁 만화·웹툰마을’도 독고탁 박물관과 창작공간, 문화거리 조성 등으로 많은 청년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더하는 산업·경제 정책도 여럿 보인다.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후속 사업으로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파크’ 를 추진하고 올해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도 내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중소기업 행복금융’, 명품점포 육성·업종전환·컨설팅 등을 새롭게 지원하는 ‘소상공·자영업 행복 경제 프로젝트’, 수출 지원을 위해 새롭게 구축되는 ‘경북 수출지원 센터’ 는 소상공인들에게 크게 환영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에는 최저가 품질보증제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바로마켓 경상북도점’ 이 개장한다. 전국에서는 과천 경마공원점과 청주점에 이어 세 번째로, 경북 농업자원관리원 부지(대구 북구)에서 매주 토·일요일에 연간 50회 이상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110억원 규모의 ‘농식품 모태펀드’ 도 조성해서 우수한 농기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

환동해시대 경북 동해안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립해양과학관’ 개관과 함께 ‘제25회 바다의 날’ 행사가 5.31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첨단양식시설, 연구개발(R&D)시설, 민간양어장, 씨푸드, 가공유통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이 집적된 초대형 수산단지인 ‘스마트 피셔리 테크노파크’ 설립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정해양을 위해 200톤급의 ‘울릉도·독도 정화운반선’ 을 새로 건조해서 해양쓰레기 수거와 미세플라스틱 조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복지 분야에서도 새로운 경북형 시책들이 추진된다. ‘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지원사업’ 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차량용 승하차보조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인에게 발병률과 합병증이 높은 대상포진에 대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지원’ 을 시행할 계획이다.

호국보훈의 고장답게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도 한층 높다. 올해 월 1만원이었던 ‘참전용사 명예수당’을 월 3만원으로 높인데 이어, 내년에는 월 5만원으로 높여서 명예수당이 2년 만에 500%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연간 200만원 한도로 지원되던 ‘의료비’를 2배인 400만원까지 크게 확대했다.

한편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답게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 사업’을 새마을 특별주간을 운영하고 영(Young)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대대적인 사업들을 펼친다.

이철우 지사는 “새로운 시책 발굴에 머리를 맞대고 많은 고민을 했다. 내년에는 이러한 시책들을 통해 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지역의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2. 31(화)】</b>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중소기업노동과			
		작성자	과장	이근식		
			담당	김명제	주무관	신재선
연락처	054-880-2681					

## 경북도, 설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 - 1,200억원 규모, 기업당 3억원(우대 5억원) 이내 융자지원, 대출이자 2% 이차보전 -

경상북도는 설 명절을 대비해 기업을 위한 경상북도의 현장지원 확대 차원에서 인건비, 자재구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1,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총 14개)을 통해 융자대출 시, 도에서는 대출금리 일부(2%, 1년)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 “도 중점 육성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 \* ① 제조업, ② 건설업, ③ 전기공사업, ④ 정보통신공사업, ⑤ 소방시설업, ⑥ 운수업, ⑦ 무역업, ⑧ 관광숙박시설업, ⑨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⑩ 자동차정비·폐차업, ⑪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 (도 중점육성기업) ① 사회적기업, ②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③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④ 실라리안 기업, ⑤ Pride 기업, ⑥ 향토뿌리기업, ⑦ 벤처기업, ⑧ 마을기업

융자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기업 당 최대 3억원 이내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경북 프라이드 기업, 경상북도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등 도에서 지정한 25종의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융자추천을 받을 수 있다.

융자 희망기업은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청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접수기간은 1월 2일부터 1월 14일까지이다. 단, 시·군 자체 실정에 따라 접수기간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시·군별 접수일을 필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용자추천 결과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서류 심사 후, 1월 8일부터 시·군에 안내할 예정이며, 용자추천 결정된 기업이 설 연휴 전인 1월 23일까지 취급은행을 통해 대출 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기준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상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www.gb.go.kr/분야별정보/중소기업지원정보](http://www.gb.go.kr/분야별정보/중소기업지원정보))를 비롯하여 각 시·군 홈페이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이번 설 명절 특별자금 지원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기존 1,200억원 규모의 설 자금이 부족할 시에는 수시분 재원을 추가로 더 사용하여 지원하는 등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적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각 시·군 연락처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054-270-2186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054-870-6232
경주시	기업지원과	054-779-6253	영양군	지역경제과	054-680-6322
김천시	투자유치과	054-420-6236	영덕군	새마을경제과	054-730-6243
안동시	투자유치과	054-840-5020	청도군	경제산림과	054-370-2232
구미시	기업지원과	054-480-6105	고령군	기업경제과	054-950-6573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054-639-6123	성주군	기업지원과	054-930-6432
영천시	기업유치과	054-330-6033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054-979-6533
상주시	경제기업과	054-537-7416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231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166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82
경산시	중소기업벤처과	053-810-5148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262
군위군	경제과	054-380-6438	울릉군	경제교통과	054-790-6272
의성군	경제투자과	054-830-6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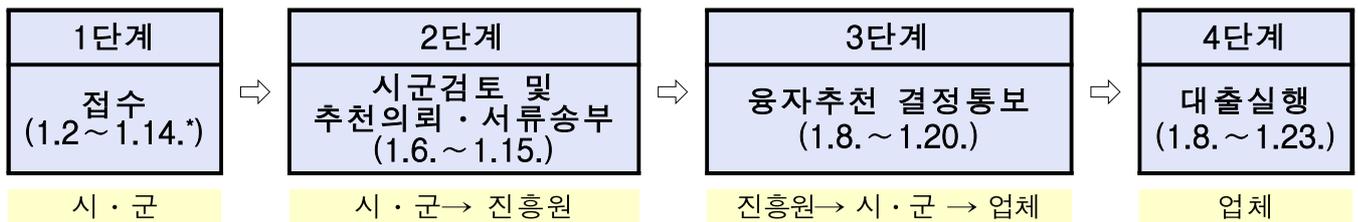
# 2020년 설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

◆ 설(1.25.) 대비, 자금수급(인건비·원부자재 구입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도모

## □ 개 요

- 용자규모 : 1,200억원
  - \* 추석자금(1,200억원)에 필요시, 수시 운영분(600억원) 추가
  - \*\* 시·군 자체 용자 추천분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道 이차보전율 : 1년간 대출이자의 2% \* (시·군 이차보전율) 2~5%로 시·군별 상이
- 사 업 비 : 24억원(이차보전금)
- 신청절차 : 접수 및 용자추천의뢰(시·군) ▶ 추천결정(경북경제진흥원) ▶ 결정통보 ▶ 대출실행(업체) ▶ 사후관리

## □ 처리절차



- ① 접수기간 : 2020. 1. 2.(목) ~ 1. 14.(화), (12일간)
  - \* 시·군 자체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자금 미소진시는 연말까지 접수지원
- ② 시·군 검토 및 추천의뢰, 서류송부
  - 추천의뢰 기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하여 시·군에서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접수 받으면 서류검토 후, 신속히(2~3일 간격) 진흥원에 서류 송부
- ③ 용자추천 결정통보
  - 2020. 1. 8.(수) ~ 1. 20.(월) 기간 중, 진흥원에서 신속히(2~3일 간격) 용자추천 결정통보
- ④ 대출실행
  - 접수기한 내에 수시 검토 및 용자 추천으로 1. 8.(수)부터 조기 대출 실행하여 설 연휴 전까지 대출 실행 완료 예정

 <b>경상북도</b>	<b>보도자료</b> <b>【19. 12. 31(화)】</b>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일자리청년정책관				
		작성자	정책관	박성근			
			팀장	노세균	주무관	권태수	
		연락처	054-880-2763				

## 도시청년 시골로 간 까닭은?

- 이낙연 국무총리,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현장 방문 -
- 문경 화수헌 한옥게스트하우스 운영 청년들과 간담회 -
- 이철우 지사... 도시청년시골파견제 국비지원, 국립레포츠진흥센터 조성 건의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월 31일 오후, 2017년 경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한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첫 사업 대상지인 문경 화수헌 한옥 게스트하우스(카페)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대표적인 지방 청년유입정책인 도시청년시골 파견제 사업에 대한 현황 청취와 청년들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국무총리 방문은 청년 인구유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 도시청년 유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정착 현장사례를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화수헌은 경북도가 지난 2017년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의 시초인 청년유턴일자리사업에 ‘리플레이스팀’으로 응모한 청년 5명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문경시에서 정비한 전통 한옥고택을 임차하여 게스트하우스와 카페로 개조하여 운영 중으로 지금까지 3만여명이 방문하여 2억5천여만원의 매출 실적과 고용창출 10명을 달성했다.

지금은 포털사이트에서 문경의 카페를 검색하면 상위에 나올 만큼 문경 여행의 최고 명소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하다.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은 경북의 최근 10년간('09~'18) 청년인구가

연평균 8,075명이 유출됨에 따라 일본이 2009년부터 시행해 온 「지역 부흥협력대」 사업을 벤치마킹 해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일본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546개 지자체에서 1,396명의 도시청년이 시골로 정착하여 지원 대상자 대비 약 63%의 정착률을 나타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017년 시범사업후에 2018년 국가지원사업화(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하여 금년부터 본격 매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2017년 시범사업 10명, 2018년 1기 93명, 2019년 2기 93명으로 총 114팀 196명이 선발되어 창업·창직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지 청년 등 162명의 인구유입 실적도 나타냈다.

사업 선발 대상자에 대해서는 활동비 및 사업화 자금을 1인당 연 3천만원씩 지원했으며, 2년차에 대해서는 사업 실적 등을 평가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다.

외지 청년들의 주요 활동 분야는 음악, 미술 등 청년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을 하는 ▲문화창작형, 지역자원·특산품과 연계한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하는 ▲청년창업형,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상품 제작을 하는 ▲역사자원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경북도의 저출생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험적인 정책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은 출산통합지원센터 개소('19.2월), 팜문화 빌리지 착공('19.3월), 청년예술캠프 운영('19.10~12) 등으로 66명의 청년 유입이 확정되었으며 47세대의 주거시설을 확보했다.

도(道)에서는 2020년에도 청년유입 정책을 더욱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제도적으로는 「인구소멸지역 지원특별법 제정」과 청년주거를 위한 「청년행복주택 디딤돌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청년 결혼 목돈지원을 위한 「청년 근로자 사랑채움 사업」을 추진하고, 서울 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경북-서울 도시청년 지역상생 사업」과 경북 청년 정책에 소통하기 위한 「청년 정책참여단 ‘상상이상’」을 본격 가동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화수현 운영 청년들은 도시청년시골과건제로 인해 소모적 경쟁중심의 도시생활을 접고 창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면서, 청년유입정책의 확대와 지원사업 후에도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청년 이주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상생, 네트워킹을 위한 제도적 도움을 바라고, 주거 기반시설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계획도 질의했다.

한편, 이날 총리 일정에 함께 동행한 이철우 지사는 도시청년 시골과 건제의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보조 기준 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을 요청함과 동시에 국립 산림레포츠 진흥센터의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과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건의했다.

국립 산림레포츠 진흥센터는 최근 산림 레포츠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 및 안전기준이 없어 해외사례나 관광시설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에 따라 전문운영기관 설립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시설규격 인증 등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중인 사업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최근 청년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걱정이다. 지난 해 1만천여명의 청년이 경북을 떠났다”면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으나, 지방정부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인구 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b>보도자료</b> <b>【19. 12. 31(화)】</b>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마케팅과			
		작성자	과장	김병곤		
			팀장	금호준	주무관	한정혁
		연락처	054-880-3213			

## **이철우 도지사, 2020년 첫 시작은 대구경북 통합과 상생** **-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 통합신공항 건설 등 하나된 대구경북 결의 -**

2020년 첫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포항 호미곶에서 새해 첫 해맞이를 함께 한다. 이후,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공무원들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 및 구청장 등 70여명은 대구 앞산충혼탑에서 다함께 신년 참배 행사를 가진다.

대구경북을 하나의 나라처럼 만들어 수도권과 경쟁하는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첫 테이프를 시도지사가 함께 끊는다고 할 수 있다.

2020년은 어느 해보다 대구경북의 상생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의 미래를 결정할 통합신공항 건설, 해양도시 대구를 위한 영일만 신항만 활성화 등 경쟁이 아닌 상생으로 함께 해야 할 현안들을 마주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2020년의 첫 번째 축제인 포항 해맞이 축전과 충혼탑 신년참배 행사를 시도지사가 함께 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20만 시도민에게 공동으로 새해 첫 인사를 하였다는 점에서 구호에만 그치는 상생협력이 이제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 12월 26일 있었던 도정성과 브리핑에서도 대구와 경북이 통합과 상생은 문화관광과 경제통합을 넘어 최종적으로 행정통합으로 가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새해 첫 시작을 알리는 해맞이를 함께함으로써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며, 취임 후 처음으로 참여하는 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뜻을 같이 할 것임을 확인하는 것이다.